

2018 기초연구과제 요약보고서

인천시 미추홀구 행복 분석

조승헌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

| 연구진

조승헌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
032-260-2693 | shjoh@ii.re.kr

| 열람방법

인천광역시 행정자료실
인천연구원 자료실, 홈페이지(www.ii.re.kr)

연구요약

I. 연구목적

- [2017년 제1회 인천 미추홀구 사회조사] 자료를 실증분석함으로써, 지역의 행복 현황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. 또한 행복 수준별로 다양한 집단을 비교분석하고 행복 취약계층을 파악하여, 계층별로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

II. 분석결과 및 정책 방향

- [미추홀구 행복 현황] 2017년도 미추홀구 사회조사 분석결과, 미추홀구의 행복도는 총 10점 만점에 평균 5.7점(삶에 대한 만족)으로 나타남
 - 남성보다는 여성이, 연령대가 낮을수록, 미혼 또는 배우자 있는 경우가 사별이나 이혼보다,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,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높아짐
 - 지역(행정동)별로는 학익1동이 평균 6.9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, 용현3동은 4.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
- [미추홀구 행복과 소득의 상관성] 소득은 주택, 건강, 가족, 신뢰 등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요인들을 친행복적으로 유지하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음
 -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, 즉 가족, 건강, 주택, 신뢰, 안전을 고려할 때 가구소득이 행복에 유의미한 변수인 것은 맞지만,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 않다는 점이 분석결과 나타남
 - 소득이 일정 정도 올라가면 소득과 행복이 비례하는 강도가 확연히 떨어지거나 정체 또는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이 드러남
 - 다만, 저행복집단의 경우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주택만족도와 건강만족도에 이어 크게 나타남. 즉, 소득이 행복에 직접적이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저행복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. 돈은 가난한 사람의 행복을 올려줄 가능성은 크지만, 부자의 행복을 높이는 데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

- [미추홀구 저행복군 정책 기조] 물질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행복추구가 가진 효과와 한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수집, 분석, 홍보하는 것이 중요. 사회적 비교를 완화하기 위해 ‘관계재 공급’과 ‘공유경제 확산’이 필요
 - 사회적 비교를 유발하는 잠재력이 큰 위치재와 같은 대상을 공유하도록 유도
 - 공유 행위에 대하여 세금혜택이나 인·허가상 편의를 주는 방식 도입
 - 위치재의 공유는 행복 관점에서 비효율적인 경쟁을 지양할 수 있다는 효과뿐만 아니라, 공유경제 활동에 따른 소비촉진 효과도 동시에 발생
- [미추홀구 저행복군의 소득수준별 행복정책_고소득저행복군] 전체 표본의 1.0%이며, 물질가치 성향이 강하여 자신보다 소득이 높은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높음
 - 개인적, 경쟁적 방식의 행복찾기를 선호하는 집단으로 물질주의 가치관이 가장 큰 장애
 - 사회적 비교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위치재를 선호하고,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관계재 소비는 꺼려함
 - 시간 여유가 없고 이해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공동체성 및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적고, 지역의 어려운 일을 도우려는 성향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낮음
 - 개인별 행복검사를 통하여 자신의 행복찾기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 이해를 하는 것이 선결적으로 필요
- [미추홀구 저행복군의 소득수준별 행복정책_중소득저행복군] 전체 표본의 8.8%를 차지하며 행복하지 못한 것이 상당 부분 자신이 아닌 외적인 곳에 원인이 있다는 인식체계를 소유
 - 공공성이나 공공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봉사나 참여하려는 의향은 높지 않음
 - 사회나 정책에 관한 긍정도가 낮으며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기관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
 - 자신의 능력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사회로부터 받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강함
 - 정의, 기회 균등, 실질적 형평성, 노동조건, 부의 분배가 합리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했느냐가 이들 집단의 인식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
 - 정부가 이들에게 소득 증대 지원책을 적용하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음
 - 경제정의, 노동의 민주화로 친행복적 사회여건이 조성되면, 행복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달라지게 되어 행복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보임

- [미추홀구 저행복군의 소득수준별 행복정책_저소득저행복군] 전체 표본의 7.0%이며 평균 연령이 61.6세로 연령효과가 저행복의 주원인
- 자연재해 안전체감도가 가장 낮고, 무직자 비중이 높아 시간 압박도가 낮은 집단
- 범죄를 신고하거나 동네 순찰에 참여할 의향이 낮지만, 지역 정체성은 양호하며, 기관 신뢰도는 중간 수준
- 노령층의 저행복에 대한 외적 요인은 노인 복지 불충분, 노인의 사회적 가치 저평가 풍조, 가족관계 해체, 배우자 불화 등 매우 다양
- 노령층이 다수인 이 집단에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행복 제고에 상대적으로 일정 정도 유익할 수 있지만, 현금, 주거시설, 건강관리로 재정지원을 분배하는 것이 행복 효율성을 위한 합리적 방식이 될 것

이 보고서는 인천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요약한 것입니다.
 자세한 내용은 인천연구원 홈페이지(www.ii.re.kr)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